

2024년 2-2

# KIET 경제·산업동향

2024년 2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 한국은행 (2024년 2월) ]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 요약 〉

### □ 해외경제 : 2023년 4분기 日 경제 -0.1% 성장, 유로존 성장률 0.0%

- 미국은 1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UN과 세계은행이 美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데 이어, IMF와 OECD도 2%대 성장률로 상향
- 일본은 12월 내수 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4분기 실질GDP가 전분기보다 감소 폭이 줄어든 전기비 -0.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유로존도 12월 내수 지표들의 혼조 속에 역내 주요국들의 성장 부진으로 4분기 성장률이 0.0%를 기록
- 중국은 1월 소비자물가 하락세로 디플레 우려가 높아지면서 인민은행이 5년 만기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25bp 인하하는 등 내수 안정화를 위해 주력
-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美 국채금리 상승으로 강세를 보인 이후, 1월 美 실물지표 약세와 인플레이 반등세로 주요국 통화 대비 약보합
- 유가는 홍해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원유재고 증가와 美 달러화 강세 등으로 추가 상승세가 제한적

###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12월 전산업생산 +0.3%

- 지난해 4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 전체 성장률이 1.4%를 기록
  -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증가세가 큰 폭 둔화(전월비 0.6%)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0.3%)에 그치면서 전월비 0.3% 증가

### □ 금융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 및 가계대출 소폭 확대, 2월 중순(2월 14일 ~ 26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강보합

- 올해 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계절요인 등의 영향으로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과 달리 증가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 기대감 약화 등으로 약세를 보인 이후, 美 실물지표 약세와 중국의 금리 인하, 외국인 선물 순매수 등으로 강보합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의 추가 상승세가 제한적인 가운데 美 실물지표 약세로 인한 추가 긴축 우려 완화와 중국 위안화 강세 등 영향으로 강보합

####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6.7%, 서비스업생산 +0.2%

- 제조업생산은 기계장비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와 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6.7% 증가('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제조업ICT와 중공업은 생산 증가세가 확대, 경공업은 생산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2% 증가

#### □ 고용 : 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4% 증가

- 올해 1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에,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도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3개월 만에 확대(1.0% → 1.4%)

#### □ 수출입 : 1월 수출 +18.0%, 수입 -7.9%, 무역수지 3억 달러 흑자

- 올해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0% 증가한 547억 달러, 수입이 7.9% 감소한 54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반도체, 컴퓨터 등 ICT 다수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는 CIS를 제외하고 미국·중국·일본·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1. 해외경제

### □ 미국 : 1월 실물지표 감소 전환, 주요 기관 올해 美 성장률 전망치 상향

○ 올 1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반등에도 선행지수 하락세 등으로 美 경기 향방의 불확실성이 여전. UN과 세계은행이 올해 美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IMF와 OECD도 2%대 성장률로 상향 제시

- 산업생산이 유틸리티(전월비 -1.0%) 부문의 반등에도 광업(-2.3%)과 제조업(-0.5%)의 동반 감소로 전월 대비 감소(-0.1%)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1.3%)와 자동차·부품(1.1%) 등에서 동반 감소 여파로 감소 전환(-0.8%)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수주 증가에 힘입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49.1)를 기록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현재 평가지수(148.5)와 미래 기대지수(85.6)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114.8)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전월 수준을 유지(12월 33만 개 → 1월 35만 개)한 반면에,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가 지속(12월 -0.2% → 1월 -0.4%)
- 연초 UN과 세계은행이 올해 美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와 1.6%로 상향한 데 이어, IMF와 OECD도 각각 2.1%와 2.2%의 추가 상향치를 제시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1.9	2.5	2.1 (2.4)	4.9 (2.9)	3.3 (3.1)				
산업생산 (IT생산)	3.4 (2.4)	0.2 (7.7)	0.2 (6.2)	0.4 (4.8)	-0.6 (3.4)	-0.8 (1.3)	0.3 (1.1)	0.0 (0.9)	-0.1 (1.3)
내구재수주	8.3	4.5	5.4	-1.1	0.9	-5.1	5.4	0.0	-
소매판매	9.7	3.4	-0.1	1.7	0.7	-0.3	0.0	0.4	-0.8
소비자물가	8.0	4.1	0.8	0.8	0.7	0.2	0.3	0.3	0.4
실업률(%)	3.6	3.6	3.6	3.7	3.7	3.8	3.7	3.7	3.7
무역수지(10억US\$)	-951.2	-773.4	-202.2	-183.1	-188.0	-63.9	-61.9	-62.2	-
ISM 제조업지수 <sup>1)</sup>	53.5	47.1	46.7	47.6	46.9	46.9	46.6	47.1	49.1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104.5	105.4	105.4	109.0	102.7	99.1	101.0	108.0	114.8
경기선행지수 <sup>3)</sup>	115.1	106.3	106.9	105.4	103.4	103.7	103.3	103.1	102.7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2월 실물지표 혼조, 4분기중 -0.1% 성장률로 연간 1.9% 성장

- 12월 생산·수주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내수 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수출 확대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를 보이고,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난해 4분기 일본의 실질GDP가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전기비 -0.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연간 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아진 1.9%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0	1.9	1.0	-0.8	-0.1				
광공업생산	0.0	-1.2	1.4	-1.2	1.4	0.5	1.3	-0.9	1.8
민간기계수주	5.5	-3.5	-3.2	-1.8	-1.0	1.4	0.7	-4.9	2.7
소매판매	2.6	5.6	0.5	2.5	-1.6	0.4	-1.7	1.1	-2.6
소비자물가	2.5	3.3	0.6	0.8	0.9	0.2	0.7	0.0	0.1
실업률(%)	2.6	2.6	2.6	2.7	2.5	2.6	2.5	2.5	2.4
무역수지(10억엔)	-19,966	-9,289	-1,779	-942	-1,383	65	-667	-785	69
경기선행지수 <sup>1)</sup>	112.0	108.9	108.7	109.2	109.0	109.4	109.0	108.1	110.0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하락, 인민銀 5년만기 금리 25bp 인하

- 연초의 경제지표 실적(1~2월) 발표가 3월로 예정된 가운데 1월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 우려가 고조. 인민은행이 1월 기준을 인하 조치에 이어, 5년만기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25bp 인하(3.95%, 역대 최저)하면서 내수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주력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0	5.2	6.3	4.9	5.2				
산업생산	3.4	4.6	4.5	4.2	6.0	4.6	6.6	6.8	-
고정투자(누계기준)	5.1	3.0	3.8	3.1	3.0	2.9	2.9	3.0	-
소매판매	-0.8	7.8	11.4	4.2	8.4	7.6	10.1	7.4	-
소비자물가	2.0	0.2	0.1	-0.1	-0.2	-0.2	-0.5	-0.3	-0.8
수출(달러화기준)	5.6	-4.6	-4.8	-9.9	-1.3	-6.6	0.5	2.3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2월 실물지표 부진, 4분기 0.0% 성장률로 연간 0.5% 성장

- 12월 역내 실물지표들이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자가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인플레 우려가 여전. 지난 4분기 독일(전기비 -0.3%)과 프랑스(0.0%) 등 역내 주요국들의 성장 부진으로 역내 성장도 정체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4	0.5	0.1	-0.1	0.0				
산업생산	2.2	-2.3	-1.5	-1.1	0.0	-1.0	-0.7	0.4	2.6
소매판매	0.9	-1.7	-0.1	-0.3	-0.1	-0.1	0.4	0.3	-1.1
소비자가물가(전년동기비)	8.4	5.4	6.2	5.0	2.7	4.3	2.9	2.4	2.9
무역수지(10억유로)	-342.7	58.6	2.1	25.0	39.2	9.3	11.1	15.1	13.0
경제체감지수 <sup>1)</sup>	101.9	96.2	96.8	94.0	94.7	93.6	93.7	94.0	96.4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보합 & 유가 강보합

- 달러화는 2월 들어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과 매파적 기초 유지 등에 따른 美 국채금리 상승세로 강세를 보인 이후, 1월 美 실물지표들의 약세와 인플레 반등세로 금리 정책 방향성이 불확실해 보임에 따라 주요국 통화 대비 약보합
- 유가는 홍해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석유 수송 차질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의 협상 정체로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원유재고 증가와 美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세가 제한적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202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26일
엔/달러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1.04	146.92	150.70
달러/유로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1039	1.0818	1.0851
미 국채 (10년만기)	3.64	3.84	3.96	4.11	4.57	4.93	4.33	3.88	3.91	4.28
WTI유	68.1	70.6	81.8	83.6	90.8	81.0	76.0	71.7	75.9	77.6
두바이유	72.1	76.1	85.6	87.2	92.9	86.7	84.3	76.5	81.2	80.8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12월 전산업생산 +0.3%

○ 지난해 4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 전체 성장률이 1.4%를 기록

- 민간소비가 2분기 연속 증가(전기비 0.2%)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상당폭 감소(-4.2%)한 반면, 설비투자가 증가(3.0%)하고, 수출(2.6%)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순수출 규모가 확대(33조원 → 37조원)되면서 성장에 일조

###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2.6*	1.4*	0.9* (0.6*)	1.4* (0.6*)	2.2*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1*	1.8*	1.6* (-0.1*)	0.2* (0.3*)	1.0*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9*	0.5*	4.7* (0.5*)	-4.2* (-2.2*)	-3.8* (3.0*)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2.8*	1.4*	1.7* (-0.8*)	3.8* (2.1*)	-1.6* (-4.2*)	-	-	-	-
전산업생산지수	4.6	0.7	-0.5 (0.3)	0.8 (1.1)	1.6* (0.2*)	2.7 (1.1)	0.8 (-1.8)	2.8* (0.8*)	1.1* (0.3*)
광공업생산지수	1.4	-3.8	-7.6 (3.1)	-2.0 (1.9)	4.2* (1.4*)	3.0 (1.8)	0.8 (-3.9)	5.5* (3.6*)	6.2* (0.6*)
제조업생산지수	1.4	-3.9	-7.8 (3.3)	-2.1 (1.8)	4.4* (1.6*)	3.0 (1.9)	0.8 (-3.9)	5.6* (3.6*)	6.7* (0.6*)
서비스업생산지수	6.7	2.9	2.3 (-0.3)	1.9 (0.7)	1.1* (-0.3*)	2.1 (0.5)	0.9 (-0.8)	2.3* (0.0*)	0.2* (0.3*)
소매판매액지수	-0.3	-1.4	-0.2 (-0.3)	-2.8 (-2.6)	-2.4* (-0.5*)	-2.0 (0.1)	-4.4 (-0.8)	-0.4* (0.9*)	-2.2* (-0.8*)
설비투자지수	3.3	-5.5	-1.2 (1.3)	-10.6 (-3.5)	-9.2* (3.1*)	-5.6 (8.7)	-10.1 (-3.8)	-11.9* (-2.5*)	-5.9* (5.5*)
건설기성(불변)	2.7	7.7	8.9 (-0.8)	10.5 (1.0)	1.3* (-2.0*)	11.3 (0.2)	3.5 (0.1)	2.2* (-3.3*)	-1.2* (-2.7*)
동행종합지수(2020=100)	108.2	109.8	110.2	110.0	110.1*	110.0	110.1*	110.2*	110.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99.5	100.2	99.4	98.8*	99.2	99.0*	98.9*	98.6*
선행종합지수(2020=100)	108.7	110.9	109.9	111.5	112.9*	111.9	112.4*	112.9*	113.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99.2	98.7	99.3	99.9*	99.4	99.7*	99.9*	10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증가세가 큰 폭 둔화(전월비 0.6%) 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0.3%)에 그치면서 전월비 0.3%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8.5%)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0.6%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운수·창고(2.5%) 등이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0.3%)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1.2%)와 비내구재(-0.7%), 준내구재(-0.3%) 판매의 동반 감소로 전월비 감소 전환(-0.8%)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2%)의 감소에도 기계류(8.9%) 증가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5.5%)
  - 동행종합지수가 수입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한 반면에,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5개월 만에 하락(전월비 -0.1%)한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금릿차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상승세(0.4%)

#### □ 물가 : 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1.3%

- 1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0.8%)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1.4%)를 비롯해 음식·숙박(0.2%),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3.2% → 2.8%)
- 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대폭 상승세(전월비 4.9% → 3.8%)와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0.2% → 0.6%), 공산품 가격의 상승 전환(-0.4% → 0.1%) 등으로 전월에 이어 추가 확대(전월비 0.5%, 전년동월비 1.3%)

####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5.1	3.6	3.3 (0.6)	3.1 (1.0)	3.4 (0.7)	3.4 (0.9)	3.7 (0.5)	3.8 (0.4)	3.3 (-0.5)	3.2 (0.0)	2.8 (0.4)
근원물가	4.1	4.0	4.3 (0.9)	3.7 (0.5)	3.3 (0.6)	3.7 (0.2)	3.7 (0.2)	3.5 (0.4)	3.2 (-0.1)	3.1 (0.2)	2.6 (0.3)
생산자물가	8.4	1.6	0.6 (-0.3)	0.7 (0.7)	0.2 (0.8)	1.0 (0.9)	1.4 (0.5)	0.7 (-0.1)	0.6 (-0.4)	1.2 (0.1)	1.3* (0.5*)
근원물가	6.4	1.0	0.3 (0.1)	0.3 (0.1)	0.7 (0.2)	0.5 (0.5)	0.8 (0.2)	0.7 (0.1)	0.6 (-0.3)	0.9 (0.1)	1.1* (0.4*)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 3. 국내금융

#### □ 기업자금·가계대출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 및 가계대출 소폭 확대

- 올해 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계절요인에 기인하여 전월비 증가 전환하면서 전체 기준 역시 증가 전환  
(2023년 12월 -5.9조원 → 2024년 1월 +6.7조원, 대기업 5.2조원, 중소기업 1.5조원)
  -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일시 상환된 대출이 재취급된 영향으로 인해 특히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비 상당폭 증가
  - 중소기업 대출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 전환
- 회사채는 연초 기관들의 높은 투자수요에다 기업들이 선차환 목적 등으로 발행을 늘리면서 전월보다 상당폭 순발행  
(2023년 12월 +0.3조원 → 2024년 1월 +4.5조원)
- CP·단기사채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상당 규모의 순발행  
(2023년 12월 -4.6조원 → 2024년 1월 +6.6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  
(2023년 12월 +0.6조원 → 2024년 1월 +0.3조원)

####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1월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은행 원화대출	104.8	13.4	77.4	7.9	8.1	7.3	-5.9	6.7	1,254.4
(대 기 업)	37.6	4.2	31.9	6.6	4.3	1.5	-2.0	5.2	253.0
(중소기업)	67.2	9.2	45.5	1.3	3.8	5.8	-3.9	1.5	1,001.4
〈개인사업자〉	19.7	2.1	7.5	-0.9	0.5	0.9	-1.0	-0.7	449.6
■회사채 순발행	-5.9	2.3	-0.9	3.2	-2.3	-0.9	0.3	4.5	..
■CP 순발행	23.5	5.8	-1.0	6.9	2.5	-2.1	-4.6	6.6	62.0
■주식발행	21.7	13.0	11.0	1.5	0.6	3.4	0.6	0.3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 지난 1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든 반면에,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  
(2023년 12월 +3.1조원 → 2024년 1월 +3.4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12월 5.1조원 → 2024년 1월 4.9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에도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감소 규모가 축소  
(2023년 12월 - 2.0조원 → 2024년 1월 - 1.5조원)

###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1월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은행 가계대출	-2.6	-0.5	36.9	-4.7	6.7	5.4	3.1	<b>3.4</b>	1,098.4
■주택담보대출	20.0	2.2	51.6	0.0	5.7	5.7	5.1	<b>4.9</b>	855.3
■기타대출	-22.9	-2.6	-14.5	-4.6	1.0	-0.4	-2.0	<b>-1.5</b>	241.9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 □ 금리·환율 : 2월 중순(2월 14일 ~ 26일) 금리 및 원/달러 강보합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1월말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조기 금리 기대감 약화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약세를 보인 이후, 美 실물지표 약세와 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  
(2월 14일 3.425% → 2월 26일 3.340%, - 0.09%p)
- 원/달러 환율은 2월 들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달러화의 추가 상승세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美 실물지표 약세로 인한 추가 긴축 우려 완화와 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으로 강보합  
(2월 14일 1,335.4원 → 2월 26일 1,331.1원, - 4.3원)

###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2024	
		3/4	4/4	1/4	2/4	3/4	12월	1월	<b>2.26일</b>
국고채(3년)	1.80	4.19	3.72	3.27	3.66	3.88	3.15	3.26	<b>3.34</b>
회사채(3년, AA-)	2.42	5.28	5.23	4.07	4.47	4.64	3.90	4.00	<b>4.01</b>
CD(91일)	1.29	3.24	3.98	3.59	3.75	3.83	3.83	3.68	<b>3.70</b>
CP(91일)	1.56	3.30	5.28	4.01	4.02	4.08	4.32	4.28	<b>4.28</b>
원/달러	1,188.8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288.0	1,334.6	<b>1,331.1</b>
원/100엔	1,030.2	993.3	953.2	981.4	907.0	901.3	912.7	901.9	<b>883.1</b>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 4. 산업별 동향

### □ 제조업생산 : 12월중 전년동월비 +6.7%, 전월비 +0.6%

○ 제조업생산이 의료정밀광학(-14.3%)과 기계장비(-7.0%), 전자부품(-8.8%), 섬유제품(-4.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53.3%)를 비롯해 1차금속(6.6%), 기타운송장비(0.4%) 등에서 증가하면서 6.7% 증가('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5.6%)와 중공업(9.0%)에서 증가세가 2개월 연속 확대된 반면, 경공업(-7.0%)에서는 감소폭이 전월보다 더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 기타운송장비(-7.9%), 전자부품(-7.5%), 화학제품(-5.7%), 섬유제품(-1.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8.5%)와 기계장비(6.1%), 자동차(4.7%), 1차금속(0.8%)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6%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3.5)는 전자부품과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2.7% 상승(3개월 연속 상승세)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7.7%로 전월 대비 8.6%p나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4분기중 재고 증가폭(8.3% → 0.4%,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축소된 반면, 출하가 전분기와 달리 증가(-1.9% → 4.5%)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2개월 만에 다시 하락

### □ 서비스업생산 : 12월중 전년동월비 +0.2%,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3.7%)와 숙박·음식점(-2.2%)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운수·창고(9.7%)와 정보통신(2.6%), 전문·과학·기술서비스(1.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8%)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2% 증가

- 전월비로도 도소매(0.0%)가 보합에 그친 가운데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8%)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1.4%), 숙박·음식점(-0.3%)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2.5%)에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함에 따라 0.3%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4.7%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8.8%나 증가

##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2	2023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전월비*
<b>광공업 (원지수)</b>	10,000	109.7	105.5	104.6	106.2	111.6	106.6	112.7	115.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3.8	-7.6	-2.0	4.2	0.8	5.5	6.2	0.6
<b>제조업 (원지수)</b>	9,569.5	109.9	105.6	105.2	106.5	111.8	107.3	113.1	115.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3.9	-7.8	-2.1	4.4	0.8	5.6	6.7	0.6
섬 유	113.4	-3.5	-7.1	-9.1	-6.9	-4.7	-6.0	-3.1	-4.9	-1.9
화 학	854.2	-9.9	-10.6	-16.1	-3.1	0.8	-0.5	3.2	-0.3	-5.7
철 강	496.6	-8.5	2.3	-2.6	3.4	18.6	26.7	18.0	11.8	1.5
반도체	2,023.8	7.6	-5.3	-18.6	4.7	35.6	13.0	42.8	53.3	8.5
컴퓨터, 주변장치	32.4	11.0	-12.5	-14.7	-17.2	-18.2	7.6	-26.6	-33.3	-5.4
통신, 방송장비	171.0	-5.1	-4.8	-12.6	-10.2	-11.8	-22.5	-5.3	-1.8	-34.7
의료, 정밀, 광학	217.2	6.6	-11.9	-13.9	-14.6	-14.3	-13.2	-15.2	-14.3	6.5
기계, 장비	737.3	1.1	-7.8	-6.5	-12.7	-11.8	-15.2	-14.2	-7.0	6.1
자동차	987.5	9.1	9.7	15.4	4.7	-0.3	2.5	-2.4	-0.8	4.7
조 선	66.0	20.7	7.2	4.6	9.3	-2.0	-4.1	3.2	-5.1	-8.9
- 중 공 업	-	1.5	-3.6	-7.7	-1.5	6.0	1.7	7.1	9.0	1.2
- 경 공 업	-	0.4	-6.2	-8.3	-5.8	-4.7	-4.2	-3.2	-7.0	-2.9
- 제조업ICT	-	2.2	-8.5	-19.1	-1.4	22.2	6.6	26.2	35.6	3.1
<b>서비스업 (원지수)</b>	1,000	112.0	115.2	115.2	114.6	119.2	114.5	116.0	127.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6.7	2.9	2.3	1.9	1.1	0.9	2.3	0.2	0.3
도소매	193.9	2.7	-0.8	-1.1	-1.9	-2.9	-3.6	-1.5	-3.7	0.0
운수및창고	78.4	17.7	10.4	9.5	8.7	7.4	6.3	6.0	9.7	2.5
숙박및음식점	44.4	16.9	0.5	-2.7	-4.7	-3.7	-5.3	-3.4	-2.2	-0.3
정보통신	88.9	1.7	-1.4	-3.8	-1.8	1.4	-0.8	1.9	2.6	-0.8
금융및보험	167.4	8.4	5.6	7.1	4.7	0.8	2.1	3.9	-3.0	4.9
부동산	38.7	8.0	2.1	3.0	2.3	-0.7	-0.9	0.5	-1.8	-3.7
전문·과학및기술	95.8	2.0	2.4	2.6	2.5	2.6	2.9	3.8	1.5	-1.4
사업시설관리 등	53.6	5.2	3.7	3.5	3.4	2.6	3.3	4.0	0.8	-1.8
교 육	73.5	1.2	1.0	0.2	1.3	1.2	1.0	1.8	0.7	-0.9
보건및사회복지	111.3	7.2	4.6	3.5	5.1	4.1	5.6	4.2	2.6	-0.3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43.6	5.6	7.0	-2.0	2.0	1.5	5.8	-0.8	3.2
협회·수리및개인	24.0	4.4	6.5	5.4	5.5	3.1	5.0	6.6	-1.0	-5.8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4.7	-1.4	-1.6	-0.9	-3.6	-2.3	-2.1	-6.4	-4.5
- ICT서비스업	-	5.5	1.8	0.8	1.7	2.6	-0.1	2.4	4.7	38.8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 5. 고 용

### □ 취업자 수 : 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4% 증가

- 올해 1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에,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도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3개월 만에 확대(1.0% → 1.4%)
  -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2개월 연속 확대(0.2% → 0.5%)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과 달리 감소율이 축소(-2.0% → -0.6%)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추가 확대(1.4% → 1.7%)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에 이어 증가폭이 좀더 확대(3.4% → 3.6%)된 반면에,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감소 전환(0.3% → -0.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0% → -3.2%)에서 상당폭 감소하고, 정보통신업(8.8% → 4.8%)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0% → 6.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3.5% → 5.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3.5% → 4.0%) 등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세가 확대(0.8% → 1.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0%로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산 업	28,089	28,416	28,693	28,687	28,518	28,698	28,764	28,698	28,093	27,743
전년동기비	3.0	1.2	1.2	0.9	1.1	1.1	1.2	1.0	1.0	1.4
농림·어업	4.6	-0.8	-0.3	-1.3	-0.3	-0.2	1.0	-0.1	-2.0	-0.6
제 조 업	3.1	-0.9	-1.1	-1.3	-0.6	-1.6	-1.7	-0.3	0.2	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8	1.5	1.5	1.7	1.8	1.3	1.4	1.7
건 설 업	1.6	-0.4	-2.4	-0.1	1.8	1.7	0.6	1.5	3.4	3.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1.8	1.0	0.6	0.9	1.1	0.3	0.3	-0.1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1.3	1.2	3.4	2.0	3.6	3.1	3.4	3.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9	2.3	2.8	2.2	1.3	2.0	1.8	1.2	0.8	1.8
실업률 (계절조정, %)	2.9	2.7	2.6	2.6	2.9	2.6	2.5	2.8	3.2	3.0

자료 : 통계청.

## 6. 수출입

□ 1월 수출 18.0% 증가, 수입 7.9% 감소, 무역수지 3억 달러 흑자

○ 올해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0% 증가한 547억 달러, 수입이 7.9% 감소한 54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ICT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도 CIS를 제외하고 미국·중국·일본·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상당폭 감소(-16.3%)하고, 非에너지 수입이 4.7%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2.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3%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도 9.6%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6.0% 증가한 약 74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6,836 (6.1)	6,322 (-7.5)	1,558 (-12.0)	1,571 (-9.7)	1,682 (5.7)	547 (-4.4)	550 (4.9)	556 (7.3)	576 (5.0)	547 (18.0)
수입	7,314 (18.9)	6,426 (-12.1)	1,593 (-13.2)	1,507 (-21.6)	1,586 (-10.7)	510 (-16.5)	534 (-9.7)	520 (-11.6)	531 (-10.9)	544 (-7.9)
무역수지	-478	-103	-35	64	96	37	16	36	45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ICT(반도체·컴퓨터·가전)와 장비(자동차·선박·기계) 중심의 수출 증가세

○ 반도체 :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수급 개선과 글로벌 IT 생산기지국(중국·홍콩 등)에 대한 수출 회복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월 기준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자동차** :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확대, EU 내 친환경차와 소형 SUV 수출 호조 등 주요국 시장에서 국산차 판매 호조가 이어지는 등 수출 다각화 전략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자동차부품** : 친환경차 수요에 따른 내연차 부품 수요 둔화에도 미국 현지 공장 내 생산모델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재차 증가
- **선박류** : 2021년도의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수출 단가와 고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 중심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LCD 생산 감축과 재고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나, TV 등 고부가가치 주력 품목에 대한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고가형 완제품 판매 비중 확대와 고부가가치 부품 탑재로 인한 평균 단가 상승에도 최근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부진에 따른 부품 수출 감소 여파로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
- **철강** : 中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로 인한 원자재 및 단가 상승과 판매류 수출 물량 증가 등으로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
- **섬유** : 주요 시장(미국·중국)에서의 의복 판매 증가와 소싱 오더 회복에 따른 편직물 등 주력 소재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재차 증가
- **석유제품** : 나프타·LPG 등 산업용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수출물량 확대로 인한 단가 하락 상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 **석유화학** : 글로벌 시장 내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에도 인도 등지의 건설·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 일부 수출시장(중국·EU)에서 신규 주문이 감소한 영향에도, 미국·아세안 등지의 생산 및 설비투자에 따른 공작기계 등 관련 수요 지속과 중동 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에 힘입어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글로벌 가전 시장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 내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가전 수요 확대와 생성형 AI 등 혁신기술 탑재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낸드 공급업체들의 감산 영향에 따른 SSD 가격의 상승과 글로벌 PC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동차	16.4	31.1	48.9	17.1	19.6	9.4	19.7	21.5	17.8	24.7
자동차부품	2.4	-1.6	1.0	0.4	-3.9	-3.6	-3.8	3.5	-10.8	10.8
선박류	-20.9	19.9	21.6	-5.7	58.7	14.6	101.8	31.6	46.6	76.0
일반기계	2.0	4.6	5.5	6.7	8.5	9.8	10.3	13.8	2.1	14.5
철강	5.7	-8.5	-5.8	-5.5	-5.9	7.3	-0.9	-11.1	-5.2	2.0
석유화학	-1.4	-15.9	-24.3	-13.8	2.2	-5.0	-3.2	6.1	4.0	4.0
석유제품	64.9	-17.3	-34.8	-27.4	1.5	-6.5	16.1	-6.7	-4.0	12.0
섬유	-4.0	-11.3	-11.3	-11.8	-6.3	-8.5	-9.0	0.5	-10.1	8.5
가전	-7.4	-1.0	-7.6	7.0	7.5	7.3	5.7	13.9	2.9	14.1
무선통신기기	-10.4	-10.2	-20.8	-8.4	0.4	-3.6	-4.5	8.3	-3.0	-14.2
컴퓨터	-4.7	-53.3	-61.6	-48.1	-31.6	-53.9	-30.5	-29.3	-34.5	37.2
반도체	1.0	-23.7	-34.8	-22.6	10.4	-13.6	-3.1	12.9	21.7	56.2
디스플레이	-1.1	-12.1	-16.5	1.2	10.8	4.0	15.5	5.9	10.9	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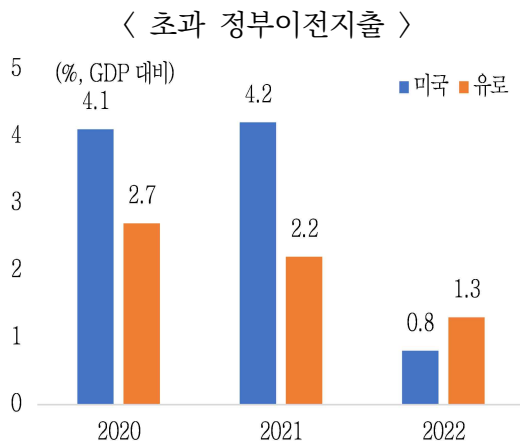
<b>부록</b>	<b>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b>
-----------	---------------------------------

한국은행(202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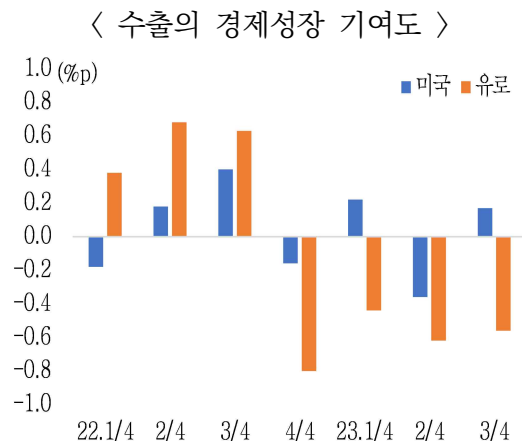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고물가와 긴축적 통화정책 과정에서 미국이 예상 밖의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로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큰 폭의 성장률 격차
- 양 지역간 성장률 분화(divergence)의 지속 기간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로지역 성장세 차별화 배경과 시사점을 도출

□ 성장세 차별화의 단기적 요인

- 우선 단기적 요인으로 재정정책과 에너지 가격 충격, 교역 부진 등의 영향이 양 경제권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 (미국)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적극적 대응과 대규모 재정정책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하고, 가계 지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와 초과저축의 축적 등으로 인해 소비에 긍정적으로 기여
  - (유럽) 러시아 등지로부터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인해 러·우 전쟁 이후 제조업 생산 위축과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높은 무역개방도에 따른 수출 감소 및 경기 둔화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자료: BEA, Eurostat,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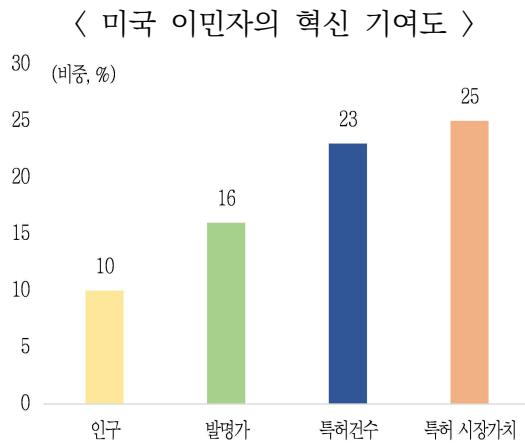


자료: BEA,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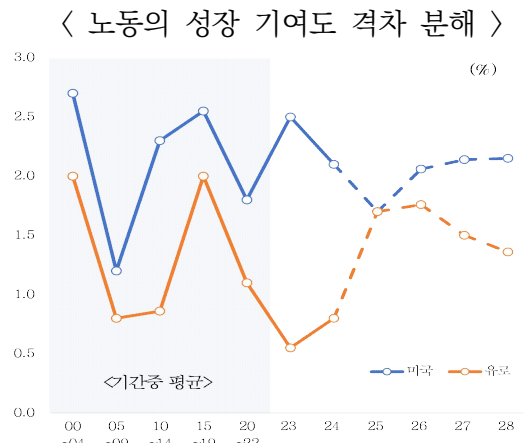
□ 성장세 차별화의 장기적 요인

- 단기 요인들이 소멸되면서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 것이나, 성장 차별화를 지속시키는 생산성,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로 살펴보면, 2010~2019년 중 미국과 유로의 성장률 차이는 생산성과 노동투입 등에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술혁신 및 고숙련 인재 유치 등에서 우위 유지

- (미국) 벤처캐피탈 등 신생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발달로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부문에서 세계적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 이민자들이 지식 전파·역동성 증진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음.
- (유럽)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비해서 저숙련 인력의 비중이 높고, 고숙련 이민자 중 역내 이민들이 많아 다양성을 통한 기술혁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첨단산업에 대한 산업 개편의 지연, 단일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 등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유로 지역의 빠른 고령화는 추세적 성장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는 양상
  - 유로 지역의 중위연령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2010~19년중 연평균 0.1%씩 감소하고, 이는 노동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 중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격차의 주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



자료: Bernstein et al.(2022).  
 주: 이민자가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 기준 (1990~2016년 평균).


















































자료: 실적치는 BEA, Eurostat.  
 주: 2023~2025년과 2026~2028년은 각각 IMF의 2024년 1월과 2023년 10월 전망치 기준.

## □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미국 성장세의 약화와 유럽 부진의 완화로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 것이나, 구조적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일정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 최근 들어 AI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이 빨라지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생산성에 영향을 줄 것
-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예견되는 상황
  - 생산성 측면에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개편이 요구되며, 적극적 이민정책, 저출산 정책의 병행과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 절실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 2.26일 )	( 2.27일 )	( 2.28일 )	( 2.29일 )	( 3.1일 )
	 1월 소비자물가  2월 소비자물가  1월 내구재수주(잠)  금융통화위원회	 1월 무역수지(수)  12월 경기선행지수(수정치)  2월 경제체감지수  23.4분기 실질GDP(수정치)	 1월 산업생산(잠)  1월 소매판매(잠)  1월 개인소비	 1월 실업률  2월 소비자물가(예)  1월 실업률  2월 ISM 제조업지수  2월 수출입통계
( 3.4일 )	( 3.5일 )	( 3.6일 )	( 3.7일 )	( 3.8일 )
 1월 산업활동동향	 2월 ISM 제조업지수  23.4분기 실질GDP(잠정치)	 1월 소매판매  2월 소비자물가	 1~2월 수출입통계  ECB 통화정책회의  1월 무역수지	 1월 경기선행지수(잠정치)  23.4분기 실질GDP(확정치)  2월 고용보고서
( 3.11일 )	( 3.12일 )	( 3.13일 )	( 3.14일 )	( 3.15일 )
 23.4분기 실질GDP(잠정치)	 2월 소비자물가	 1월 산업생산  2월 고용동향	 2월 소매판매  2월 생산자물가	 2월 산업생산
( 3.18일 )	( 3.19일 )	( 3.20일 )	( 3.21일 )	( 3.22일 )
 1~2월 산업생산  1~2월 소매판매  1~2월 고정투자  1월 기계수주  1월 소매판매(수)  BOJ 통화정책회의  2월 소비자물가(수)  1월 수출입통계	 1월 산업생산(수)  연준 FOMC(3.20일)		 2월 무역수지(잠)  2월 경기선행지수	 2월 소비자물가  2월 생산자물가